

## 드라발

### 드라발(주), 신기술의 유두침지 제품군 한국 시장 런칭

드라발(주)이 새로운 유두침지 제품군을 한국시장에 런칭했다.

드라발(주)의 솔루션 부장인 장익진 수의사에 따르면, 드라발 프리미엄 침지제에 사용되는 세가지 신기술 중 하나인 에이씨티 (ACTTM : Advanced Conditioning Technology)는 특허 등록된 하이테크 기술로써, 약제가 피부 깊숙이 도달하도록 하는 특성과 탁월한 보습효과로 갈라지고 자극 받아 상처 입은 유두의 치유를 돕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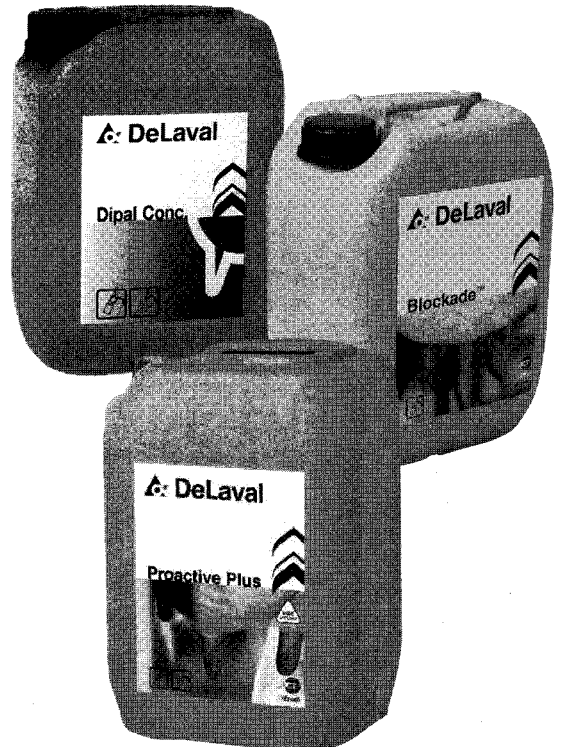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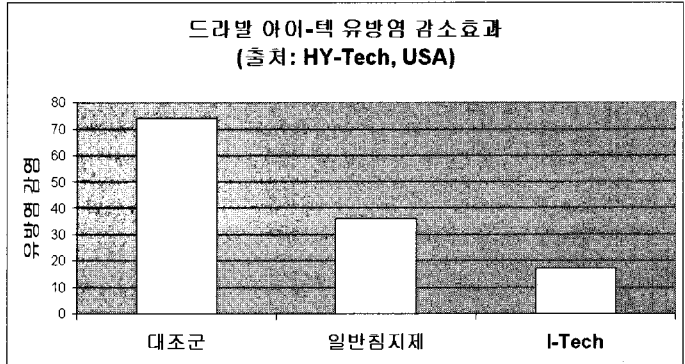
또한, 빠른 치유를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유방염 발생을 감소시키며, 자연적으로 유질개선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두 번째 신기술은 유두 침지제의 살균 성분인 활성요오드(Free Iodine) 농도를 높게 유지시켜주는 아이-텍(I-Tech™)기술로, 이는 활성요오드(Free Iodine)를 재생하여 침지제가 유두에 머무르는 동안 살균 능력을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술이다.

공식적인 시험결과로(HY-Tech, USA) 아이-텍(I-Tech™)기술에 의한 드라발 침지제의 사용이 유방염 감염 개체 수 증가를 70% 가까이 억제함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흘러내리지 않는 베리어(Barrier) 침지 기술이 드라발 침지제의 3중 보호 효과를 완성하는데, 침지 후 유연한 왁스 필름이 유두에 지속적인 코팅을 제공하여 오전, 오후 착유시간 사이에

드라발 아이-텍 유방염 감소효과  
(출처: HY-Tech,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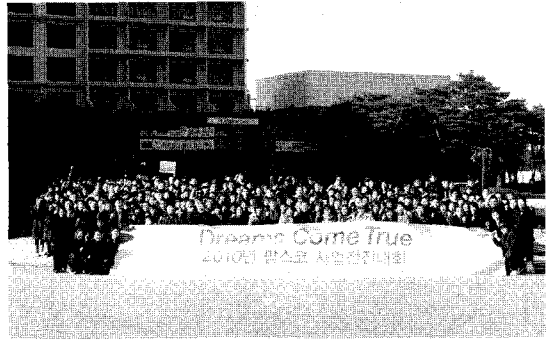
유방염 원인균의 유두 침입을 완벽하게 방어한다고 한다.

**(주)팜스코**

(주)팜스코(대표이사 : 정학상)는 1월 22~23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임직원과 그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사업전진대회를 개최했다.

〈'Dreams come true' 2010년 팜스코 사업전진대회〉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정학상 팜스코 대표이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를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생산성을 이뤄야 한다." 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동시에 참석한 이들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참석한 부인들은 남편의 일과 그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남편만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회사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리승용 원장)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김현섭 과장)에서는 충남대학교 낙농과 박종수 교수를 초빙하여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락포럼을 실시하였다(2010.20.10). 기존의 우유대금산정에 관련된 유지방과 유대산정에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유단백질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내용을 토의 하였으며, 특히 우유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덴마크나 유럽 등 낙농선진국의 유대산정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젖소를 연구하는 30여명의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내 젖소의 경제연령의 증가를 위하여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유대산정기준의 변경을 공감하였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제품에도 무지방이나 저지방우유의 공급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유대의 산정기준과 건강에 이로운 유제품의 생산 및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 CJ제일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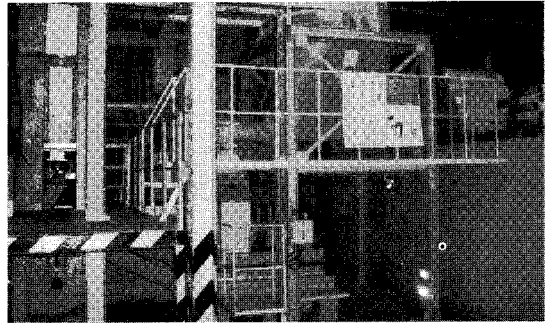
### CJ제일제당, 업계최초로 전 공장에 동물성 단백질 원료 라인 분리 시스템 구축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 박호인 부사장)가 업계 최초 전 공장의 동물성 단백질원료 라인을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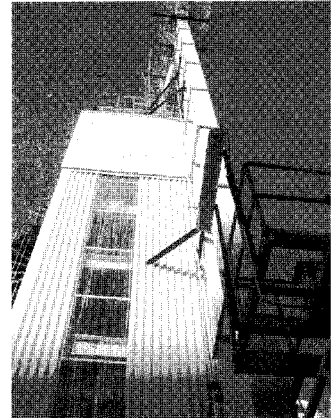
이 분리 시스템은 BSE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반추동물사료에서의 동물성 단백질원료 혼입 리스크를 생산공정에서 동물성단백질원료와 일반원료라인을 완전 분리하여 교차오염을 사전 차단 한 것으로 축우사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했다는 평가다.

CJ제일제당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정 검토를 거쳐 시험가동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연초부터 새로운 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제품을 생산 중이다.

심순갑 생산총괄은 “고객의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글로벌 축산



회사로써 당연한 책무”라는 말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노력을 보여준 임직원들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 CJ제일제당, R&D Dr. J.Van Eys 영입



CJ제일제당 사료BU는 축산분야의 세계적인 R&D인 Dr. J. Van Eys를 영입하였다.

Dr. J. Van Eys는 네덜란드 출신 컨설턴트로 퓨리나 본사의 연구소장과 기술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는 유럽지역 글로벌 축산회사들의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다.

Dr. J.Van Eys는 과거 CJ축우사료 분야 컨설팅으로 성과와 검증받은 인물로써 CJ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에 글로벌 수준의 R&D 신기술 전파와 제품 개발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Dr. J.Van Eys는 “고객이 원하는 R&D기반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해 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9차 판매과장 인턴십 스쿨 성공적으로 마쳐**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보균)는 지난 1월 17일부터 20일간 ‘29차 카길애그리퓨리나 판매과장 인턴십 스쿨’을 열어 총 27명의 훈련생이 수료를 받았다. 판매과장 인턴십 스쿨(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Internship School)은 전국 특약점/사업소의 신입 판매과장 및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천 박촌동에 위치한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리더십 센터에서 약 3주간의 합숙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짙 짜인 교육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양돈, 축우 등 각 축종별 생리적 특성, 사양관리에서부터 질병 및 방역, 사료 프로그램, 각종 농장관리 전산프로그램 교육, 고객 응대 요령, 판매를 위한 실전 훈련 및 판매기법, 공장 및 중앙실험실 견학 등으로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 판매과장은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겨 보다 능동적으로 실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3주 동안 합숙하면서 구축한 동료들간의 네트워크는 앞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수료식에서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본사 영업부 교육훈련 담당 신재관 부장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이번 교육을 연기에 대해 갈등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객의 최대 수익 창출과 대한민국 축산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사 영업부 교육훈련 담당 신재관 부장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이번 교육을 연기에 대해 갈등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객의 최대 수익 창출과 대한민국 축산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티 이재민돕기**

**성금 1천4백만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이보균)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아이티 강진 이재민 돕기 성금 1천4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전국 카길애그리퓨리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6백9십7만5천원에 회사 매칭 펀드를 추가하여 합친 금액이다. 이로써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10일간의 모금액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게 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본 성금을 피해

지역 아동과 주민들의 식량, 식수 및 보건, 아동 쉼터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국내 발생한 재난 이재민 돕기 성금뿐 아니라, 쓰촨 강진이나 필리핀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에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 바 있다. ☺